



2000안타

‘야구천재’ 이종범 프로 18년만에 위업

‘야구천재’ 이종범(40)의 노장투혼이 눈부시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종범이 9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한·일 통산 2000안타를 달성했다. 10일에는 5타수 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프로 18년차 이종범의 2000번째 안타는 약동하던 연패탈출의 신호탄이 됐다.

9일 나지완의 솔로홈런에 힘입어 2-2로 맞서고 있던 4회말, 이종범이 유원상을 상대로 때려낸 타구가 좌익수·중견수·유격수 사이에 떨어지면서 2루타가 됐다. 한·일통산 2000안타 기록이 작성된

순간이다. 2000안타 돌파는 삼성 양준혁(2318안타)과 SK 코치로 변신한 전준호(2018안타)에 이어 세 번째다.

2루를 밟은 이종범은 헬멧을 벗고 환호하는 관중석의 팬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종범은 김상훈의 적시타 때 홈을 파고들면서 역전극의 주역이 됐다.

노장 이종범을 앞세워 역전에 성공한 KIA는 오랜만에 최상의 호흡을 과시한 불펜의 활약으로 4-2 승리를 거뒀다. 17경기만에 신고한 감격의 승리였다.

10일 7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한 이종범은 첫 타석이었던 2회말 1사·1·2루

에서 2타점 2루타를 기록하며 한화 마운드를 흔들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2루타를 추가하는 등 이종범은 4개의 안타로 4타점을 올리며 팀의 2연승을 지휘했다.

1993년 해태에 입단한 이종범은 프로 두 번째 해인 1994년 타격(0.393), 최다안타(196개), 도루(84개), 득점(113득점), 루타(290루타), 출루율(0.452) 1위를 싹쓸이하며 프로야구의 자각변동을 예고했다.

이종범은 일본에 진출하기 전인 1997년까지 713안타를 기록했다. 팔꿈치 골절상의 악재 속에서 주니치 유니폼을 입고 286안타를 추가한 이종범은 2001년 8월 한국으로 복귀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16연패 후 2연승 타격 부활... 4강 간다

KIA 타이거즈가 9일 한화 이글스와의 안방대결에서 4-2로 승리하며 길고 길었던 16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마운드가 약한 한화를 상대로 10일에는 선발 전원안타까지 기록하며 12-3의 대승을 거뒀다.

11일 장맛비에 아쉬운 휴식을 취하게 됐지만 ‘디펜딩 챔피언’ KIA는 불명예스러운 연패기록 작성을 멈추며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KIA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약동하던 21일의 패배가 남긴 ‘연패후유증’이 KIA의 2010시즌을 위협하고 있다.

약체 한화를 상대로 겨우 연패를 끊었지만 조범현은 2기 체제 출범 1년도 안돼 난과 위기까지 몰렸다. 약속된 2012년까지의 순환 여부는 남은 4강 싸움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IA는 연패 속에 6위까지 추락했지만 4위 롯데와는 3.5게임차에 불과하다. 50경기를 남겨둔 만큼 4강 희망은 남아있다. 24일 올스타전까지 LG-SK-삼성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4강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LG에 16승1무2패로 절대적 우위를 보였던 KIA는 올 시즌 쌍둥이의 타력에 밀려 4승7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SK는 KIA에 연패를 안겨줬다.

지난달 18일 SK전 패배로 시작된 연패는 지난 8일까지 계속됐다. 연패중 SK는 6승을 챙겨줬다.

삼성도 오정복·조영훈·김상수 등 새 얼굴을 앞세워 신바람 행진을 하고 있다. 신진 선수를 통한 경쟁구도 형성에 실패한 KIA와 상반된 행보다.

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KIA는 자신감이라는 중요한 무기를 잃어버렸다. 열세를 보이고 있는 세 팀과의 전반기 일정을 남겨둔터라 자칫하면 다시 연패에 빠질 수도 있다. 초반 기선제압에 실패한다면 KIA의 4강 꿈도 일찌감치 사라질 수 있다.

순위싸움에 속도를 내야하는 조범현 감독은 성난 팬심을 달래야하는 등 안팎의 상처 병합에도 나서야 한다.

8일 KIA는 두산과의 잠실경기에서 16연패를 깨웠다. 지난해 우승팀 KIA가 팀의 역

대 최다 연패 기록(9연패)을 또다시 갈아치우자 잠실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조범현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등장했고, 일부 팬들은 선수단 버스까지 가로 막아섰다. 조범현 감독이 직접 사과를 하고 경찰까지 투입된 끝에 선수들은 광주로 향할 수 있었다.

버스까지 막은 과격한 행동을 놓고 팬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 우승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연패 과정에서 안팎으로 큰 생계기가 남았다.

KIA는 16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선수단 운영과 위기 관리 능력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팀 내부에 급급증이 만연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도 약화됐다. 작은 위기에도 팀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버린 셈이다.

성과와 팀 쇠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조범현 감독의 리더십이 남은 시즌을 풀어나갈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2-2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37분 독일의 자미 케디라(왼쪽 두번째)가 날린 헤딩골이 우루과이의 골문으로 빨려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26일 출국

맨유 북중미 투어 불참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맨유의 프리 시즌 투어에 불참하는 대신 중남미 휴식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10-2011시즌을 준비한다.

박지성은 1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도는 북중미 투어에 참가할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했던 박지성은 휴식을 배려한 구단의 결정에 따라 북중미 투어 명단에서 빠졌다. 맨유는 1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스코틀랜드 명문클럽인 셀틱FC와 경기를 시작으로 31일 에르난데스의 전 소속팀인 멕시코의 치바스와 경기까지 다섯 경기를 치른다.

한편 박지성은 국내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박지성은 24일 수원에 건립될 자신의 이름을 딴 청소년 축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하며 출국 열을 전인 16일부터 본격적인 풀만 들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침단전차’ 월드컵 2회 연속 3위

독일,우루과이 3-2 눌러... 밀러·포틀란 나란히 5골

‘전차군단’ 독일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2회 연속 3위를 달성하며 대회를 마쳤다.

독일은 11일(한국시간)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4위 결정전에서 2-2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37분 자미 케디라의 결승 헤딩골에 힘입어 남미의 전통 강호 우루과이를 3-2로 물리쳤다.

이로써 독일은 자국에서 개최됐던 2006년 대회에 이어 월드컵 2회 연속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반면 남미팀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루과이는 4강에서 ‘오렌지군단’ 네덜란드에 덜미를 잡힌 데 이어 독일의 벽에 막혔다.

이날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한 토마스 뮐러(독일)와 디에고 포틀란(우루과이)은 각

각 5골로 다비드 비야(스페인), 베슬라이스 네이더르(네덜란드)와 득점 부문 공동 1위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반 19분 독일이 선제골을 뽑았고 뮐러가 해결사로 나섰다.

주장 완장을 찬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가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자 우루과이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가 가까스로 편칭해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독일의 공격수 뮐러가 오른쪽 골지역으로 달려들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우루과이는 전반 28분 오른쪽 하프라인 부근에서 디에고 페레스가 태클로 슈바인슈타이거의 공을 가로챈 뒤 수아레스에게 찔러줬다.

수아레스의 전진패스를 이어받은 에딘손

카바니가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골문을 갈라 1-1을 만들었다.

후반 6분 우루과이는 포틀란의 역전골로 승부를 2-1로 뒤집었다. 포틀란은 오른쪽 측면을 돌리던 에디니오 아레발로가 크로스를 올려주자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문을 꿰뚫었다.

독일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후반 11분 제롬 보야텡이 오른쪽 후방에서 반대편으로 길게 전진 패스를 해주자 왼쪽 골지역에 도사리던 안첸이 헤딩슛으로 연결하면서 골네트를 출렁여 다시 2-2 동점을 만들었다.

독일은 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우루과이 수비수 투가노의 오른발을 맞고 살짝 뜬 볼을 케디라가 달려들며 헤딩슛을 내리꽂아 천군 같은 결승골을 뽑아냈다. /연합뉴스

점쟁이 문어 ‘파울’ 최고 스타

독일 3위 적중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독일의 승패를 정확히 예고한 독일의 ‘점쟁이 문어’ 파울이 독일의 3-4위전 승리를 맞히면서 이번 대회 우승국을 스페인으로 선택(사진)한 파울의 예언이 적중할지에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독일은 11일(한국시간) 새벽 포트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우루과이와 3-4위전에서 3-2로 이겨 3위로 이번 대회를 끝냈다.

공교롭게도 파울은 이번 경기에 앞서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생물박물관에서 진행된 3-4위전 승패 예측에서 독일의 국가가 그려진 유리상자의 홍합을 삼켜 독일의 승리를 점쳤고, 결과는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로써 파울은 이번 대회에서 독일이 치른 7경기 결과를 모두 맞히는 신동력을 발휘했다.

지난 2008년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08)부터 스페인과 결승전 한 경기만 빼고 독일의 승패를 모두 맞히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파울은 이번 대회에서도 독일의 조별리그 결과를 비롯해 잉글랜드와 16강은 물론 아르헨티나와의 8강, 스페인과 4강, 우루과이와 3-4위전까지 모두 정확하게 예측했다.

경기장을 찾은 우루과이 팬들은 파울의 예언에 기분이 상한 듯 관중석에서 ‘오늘 밤 특별 메뉴, 우루과이식 문어구이’라는 손팻말과 함께 석쇠 위에서 요리되고 있는 파울의 모습을 그림으로 펼쳐보이며 예언이 빗나가지길 기원했다. /연합뉴스

북한 대표팀 정대세

獨 보훈과 정식 계약



북한 축구대표팀 주전 공격수 정대세(26)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부리그 VfB 보훈과 정식 계약을 맺었다고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가 10일 밝혔다.

이미 2일 일본 언론을 통해 보훈과 입단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던 정대세는 2012년까지 보훈에서 뛰기로 합의했고 이후 1년은 옵션으로 남겨뒀다.

일본프로축구 가와사키에서 활약하던 정대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보훈은 2009-2010시즌 분데스리가 17위에 그쳐 다음 시즌 2부 리그로 강등된 팀이다.

정대세는 구단 홈페이지와 인터뷰에서 “유럽 무대에서 뛰기를 간절히 바랐다. 보훈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줘 좋은 인상을 받았다”며 “보훈이 다시 1부리그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